



◇ '무자 화두' 논쟁을 재연시킨 성본스님의 강설 장면.



◇ 칼날과도 같은 예리한 선문답에 집중하고 있는 수좌들.



◇ 무차대법회에 열린 재가자들의 관심과 참가 열기도 대단했다.

6천여 사부대중 '성황'

참사람 무차대법회

“탐심하지 말고 만민에게 선행을 베풀라”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법어(요지)

(주장자를 들어 보시고 법상을 한 번 치고 설하거늘.) 이 주장자는 삼세제불의 명근(命根)이요, 역대도인(歷代道人)의 안목(眼目)이로다. 이 주장자를 알면 일초 직접 여래지(一超直入 如來地)라. 여래지란 법신변사(法身邊事)나, 여래선(如來禪)이나, 향상일로(向上一路)를 투과(透透)하여야 여래지를 증득(證得)하여 요사인(了事人)이 될이로다. 21세기는 참사람을 밝히는 선수행(禪修行)이 아니고는 세계인류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고, 마음의 갈등을 해소(解消)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 선수행을 꾸준히 닦아 행할 것 같으면 큰 지혜(智慧)를 증득하여 편안한 낙(樂)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 혼자만이 많이 가지겠다고 탐심하지 마시고, 만민에게 베푸는 선행(善行)을 행하여야, 나고 날 적마다 복(福)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이 되는 선행을 행하고, 참나를 닦아 행하는 선 수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옛 도인이 말씀하시기를 “인빈(人貧)함은 지단(智短)이요 마수(馬瘦)함은 모장(毛長)이니라” 하셨습니 다. 우리 모두 선수행과 선행을 겸비한 생활 철학으로 생활하십시오. 근세(近世)에 유명한 선사(禪師) 2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남방에 해월(慧月) 선사가 계셨는데, 경허(鏡虛)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제자가 된 후로, 남방에 주석(住錫)하시며 많은 수좌스님들을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인 통치(統治)를 받는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 통치하는 남총독(南

總督)이 남방 선지식이 명성이 대단한 것을 알고 하루는 해월 선사를 방문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총독이 말하기를,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불법(佛法)의 진리입니까?” 해월 선사가 대답, “불법의 진리? 귀신 방기(鬼神放氣)니라” 하니, 총독이 여러 동질하여 알아듣지 못하고 가버렸다. 그런 후로, 남총독이 해월 선사에게 방망을 맞고 갔다는 소문이 일본국(日本國)까지 분분하니 일본 군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한국에 가서 해월 선사를 혼내주리라” 하고, 한국에 와서 해월 선사 계시는 방 앞에 이르러 노크도 안하고 구둑발로 들어가 해월 선사 목에 장검을 뽑아 대거를 들. 해월 선사가 즉시 손으로 일본 병사 뒤권을 가르키니 도적이 제발에 찔려 뒤를 돌아보니, 해월 선사가 즉시 일어나서 일본 병사의 등을 치며, “내 칼을 받아라” 하니, 그 일본 병사가 장검을 거두고 큰 절을 하며, “과연, 큰스님이십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 당시 해월 선사가 공포의 표정을 지었다면, 즉시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한 지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모두 생활 속에 참사람을 찾는 선 수행을 잘함으로써, 만민에 앞서는 선견지안목(先見之眼目)을 갖추게 되니,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합시다. 해월 선사 회상에서 운봉 선사가 여러 해 동안 해월 선사를 모시고 정진하다가 이곳 백양사 운문암에서 용맹정진중 대오경성(大悟見性)을 하셨습니다. 그 후, 해월 선사 계신 곳을 찾아가 예삼배를 올리고 물기를 “삼세 제불(三世諸佛)과 역대 도인(歷代道人)들이 어느 곳에서 안심일명(安心立命)했습니까?” 하니, 해월 선사께서 “양구(良久)” 하시니 운봉 선사가 대답 말하기를 “산 용(龍)이, 어찌 죽은 물에 잠겨 있습니까?” 했지요. 해월 선사께서 “너는 어떻게 하려는 고?” 하자, 운봉 선사가 불자(拂子)를 들



어 보이니, 해월 선사께서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하니, 운봉 선사가 다시 “기러기가 참문 앞을 지나간지가 오래입니다” 하니, 해월 선사께서 “내가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 하시고 법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후로 세월이 흘러 연로한 후에는 산에 떨어진 솔방울을 주워다가 불을 때는 생활을 하셨는데, 향시 솔방울 포대를 짊어지고 오다가, 쉬는 자리에서 잠깐 쉬었다가 오시고 하셨는데, 하루는 솔방울 포대를 반쯤 짊어지고 일어서는 자세를 하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된 연고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숨이 떨어지면 전신(全身)을 가누기가 힘들거늘, 해월 선사는 이와 같은 열반상을 보이셨습니다. 장하고, 장하다. 운봉 선사는 해월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로 제방 선원과 선지식을 참빙하셨습니다.

경기도 양주 망월사를 가시어, 제방에서 발심한 수좌스님들과 모여 결제방을 짜기를 용성(龍城) 선사를 조실 스님으로 모시고 운봉 선사를 입승 스님으로 모시고, 석우 선사를 선덕 스님으로 모시고 4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살림이 도래하여 조실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법문 하시기를, “삼세 제불(三世諸佛)도 참나를 보지 못함이고, 역대 도인(歷代道人)들도 나를 보지 못함이니, 여기에 모이신 대중 스님들은 어느 곳에서 참 나를 불러는고?” 이렇게 물으니, 운봉스님이 일어나 대답하시기를, “우리 독 속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하니, 용성 선사께서 법상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대중들이, 물음도 멋이 있었고, 또한 답하심도 멋이 있음이로다. 우리들 속에 몸을 감추어라 하는데, 조실 스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법상에서 내려 가셨던들 더욱 더 좋을 것을! 산승(山僧)이 그 당시 조실이 되었던들 한마디하고 내려갔을 것임이다. “사자(獅子)가 선릉(善能) 사자후(獅子吼) 하는구나. 하였던들 금상경화(鏡上添花)로다.” 운봉 선사는 이러한 고준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라. 세월이 지나 신도와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법문을 하시고 입적하시려 할 때, 향곡 선사가 물기를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누구를 의지하여 지도를 받으니까?” 선사께서 오른 손으로 자리를 툭툭 치시며, 육자배기를 읊으셨어요. “저 건너 갈비봉에 비가 떨어오구나, 우장 삿갓을 두르고 감을 매려 갈거나.” 그러시고 편안히 들어우워 숨을 거두려 하셨습니다. 좌우에 있던 대중들이 “스님, 스님” 소리치니, “나를 불러 무엇 하려는고?” 하시고, 입적하셨습니다. 대중들이, 양대 선사(兩大師)의 입적(入寂)함을 보시오. 한 분은 솔방울 포대를 지고 반쯤 일어나는 자세에서 열반에 드셨고, 한 분은 토끼꼬리 빠지는 날 제자들과 대답하시고 열반에 드시니, 제불제조(諸佛諸祖)의 무상대열반(無上大涅槃)이로다. 대중은 알겠습니까? 一願明珠轉玉盤 徹底無瑕光皎然 頂門未具金剛眼 慧月雲峯不易親

동국대 교수인 성본스님이 '간화선의 수행체계'를 주제로 강설하면서, “사실 간화선의 근본은 조주스님의 무자(無子) 공안을 참구하는 것이며, 간화선의 수행에서 무자 공안을 능가하는 공안은 없다”고 하자 ‘이렇고’ 등 다른 화두를 참구하는 일부 수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무자 화두’ 논쟁이 다시금 재연됐다. 한 비구 수좌가 “무자 화두를 ‘無로 새겨야 할 지(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새겨야 할지 말해보라”고 하자, 성본스님은 “나는 그냥 ‘無’라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냥 ‘무’라고 하면 의정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성본스님은 “의심은 간화선의 추진력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다른 한

성본스님 ‘무자 화두론’ 일부수좌 강하게 반발

거사도 “성본스님이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성본스님은 “틀렸다. 안 틀렸다는 생각에서 떠나시오”라고 말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무자 화두’ 논쟁은 그간 성본스님이 기회있을 때 마다 제기한 것으로 일부 수좌들의 반발을 사왔다. 성본스님의 강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불교에는 많은 공안이 있다. <점등록>에 전하는 소위 1700 공안이나, <백양록> 100칙, <종용록> 100칙, <무관론> 48칙 등의 많은 공안집에 전하고 있는 공안이 있다. 이러한 선종의 공안집에 수록된 공안들은 조주의 무자 공안처럼, 근원적인 본래심을 깨닫고 참구하기 위한 공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事例), 혹은 관례(判例)인 공안을 공부하여 정법의 안목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선불교의 교과서이다.

법거랑

오늘날의 참사람을 주제로 법문한 진제스님의 법어 뒤에도 법거랑이 진행됐다. 젊은 관사 시절 통도사 경봉 노스님을 친견, “어디서 왔노?”란 질문을 받고 “부산에서 왔습니다”했다가, 그제 선문답인 줄 뒤늦게 깨달아 경봉 “어디서 왔노”란 화두를 들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임희동 변호사가 가르침을 청했다. 임 변호사는 “스님의 법명은 진제(眞際)라고 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의 진제를 말씀합니까”하자, 진제스님은 “오·구(五九)일이 지나면 다시 불을 만나리라”고 답했다. 임 변호사가 다시 “경봉스님으로부터 ‘어디서 왔노’를 화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초기 불교 교단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 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계 제도, 안거와 포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초기 불교 교단생활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 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중 하나인 다라니와 탠트라 의미, 밀교의 교판본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밀교학개론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에 나기엔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운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생기론)을 한국최초로 발명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사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경지(地地)와 풍지(風地)로 나누어 지다.
2. 길터(路土)와 묘터(墓土)는 풍지(風地)와 낙터(落土) 땅기운이 흩어진다.
3. 낙터(落土)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4. 낙터(落土)에는 명가(名家)와 풍가(風家)가 있다.
5.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6.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석 저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한재의 선간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원상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전국 서점 판매중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값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x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값 15,000원(대)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값 10,000원(소)
3. 재미있는 오묘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값 12,000원(대)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정원 김용석 저/값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값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원/전원희 공저/값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정원/송철수님 저/값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실심부 신국판/양정원/송철수님 저/값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양정원/송철수님 저/값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양정원/송철수님 저/값 15,000원
11. 신도정비결 신국판/백광 저/값 8,000원
12. 사주입상록 신국판/양정원 이상욱 저/값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정원 진상백 저/값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김용석 편저/값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당신이 당시는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합을 치르고 준행을 사고** (주식)를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S신/양장본
값 40,000원

실전 사주학길라잡이

임주암이면 나도 사주를 볼 수 있다.

지식의 유무·어떠한 직종이 나의 적성이며, 어느 길로 가야 적합하며 언제 운이 열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 명리학이다.

김용석 저
신국판 값 15,000원